금융위원회

보 도 자 료

보도	2021.4.26.(월) 조간	배포	2021.4.23.(금)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책 임 자		담 당 자	
	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	서 병 윤 사무관 (02-2100-2991)
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	이 지 형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노 영 후 팀 장 (02-3145-8050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광 우(02-3145-6770)		이 건 필 팀 장 (02-3145-6773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양 진 호(02-3145-7550)		문 재 희 팀 장 (02-3145-7552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권 화 종(02-3145-8070)		김 세 모 팀 장 (02-3145-8080)
	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장 차 병 주 (02-531-1700)		김 근 일 팀 장 (02-531-1720)
	은행연합회 상무 김 평 섭(02-3705-5050)		유 문 선 부 장 (02-3705-5339)
	여신금융협회 상무 이 태 운(02-2011-0710) 배 종 균(02-2011-0602)		김효석 부 장(02-2011-0743) 이경원 부 장(02-2011-0742)
	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최 병 주(02-397-8602)		성 용 욱 부 장 (02-397-8640)
	신협중앙회 이사 박 영 범(042-720-1211)		김 일 환 본부장 (02-720-1300)
	서울보증보험 전략영업본부장 조 영 록(02-3671-7008)		권 동 성 부장 (02-3671-7791)

제 목 : 중·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도 낮추어 나가겠습니다.

-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(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❸) -

- ▸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, '22년 약 220만명에게 35조원 공급 예상
- ▸ 대출이동 활성화,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

① 중금리대출의 **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**하여, 중금리대출이 **중·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**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.

② **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,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**, 자유로운 **대출이동 활성화**를 통해 **금리 인하를 유도**하겠습니다.

③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**저신용차주**를 **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적극 흡수**하겠습니다.

1 개 요

□ 금융위원회는 **법정최고금리 인하('21.7월, 24%→20%)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**로 「**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**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
※ **[참고]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1.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('21.3.31.)**
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2. 대부업 제도개선방안('21.4.1.)

○ 이번 방안은 **중·저신용층**에게 **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**하고,

○ 최근 빠르게 발전 중인 **디지털기술의 활용**과 **시장경쟁**을 통해 **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**하는 한편,

○ **법정최고금리 인하**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**저신용 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**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

2 개선방안 주요내용

1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: 중·저신용층 확대 공급

가.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 신설

□ **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**에 **신용점수 요건이 신설**됩니다.

○ **사잇돌대출**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그간 **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***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
* 전체 **사잇돌대출 공급액**('20년 기준) **중 55%**가 신용등급 1~3등급 차주에게 공급 (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66.4%)

○ **사잇돌대출**에 **신용점수 요건을 신설**하여 **신용점수 하위 30% 차주**(기존 5등급 이하)에게 **사잇돌대출의 70% 이상이 공급**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.

나.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전면 개편

□ **민간중금리 대출**은 '**신용점수 하위 50% 차주**(기존 4등급 이하)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**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**'로 **요건을 변경**하여 관리하고 **인센티브를 부여**하겠습니다.

○ 그 동안은 **사전공시된 “중금리대출상품” 취급실적**만을 **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**함에 따라,

- **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**이 **중금리대출로 인정***받거나, **중·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**이 **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****가 있었습니다.

* ‘중금리대출상품’으로 사전공시되어 기존 **4등급 이하 차주에 70% 이상 공급**된 ‘**상품 전체실적**’을 중금리대출로 인정

** **은행권**의 **4등급 이하 신용대출** 공급규모는 **14.4조원**, 평균금리도 **3.9~6.1%** 수준이나, 실제로 **중금리대출로 집계되는 금액은 0.2조원**에 불과(’20년 기준)

○ 제도개편을 통해 “**중·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대출**”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여 **규제 인센티브를 부여**하는 한편,

- **금리상한 요건**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**합리적으로 인하**하겠습니다.

< (현 행)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>

구분	은행	상호금융	카드사	캐피탈	저축은행
가중평균금리	6.5%	8.5%	11.0%	14.0%	16.0%
금리상한	10.0%	12.0%	14.5%	17.5%	19.5%

↓

< (개 선)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>

구분	은행	상호금융	카드	캐피탈	저축은행
금리상한	6.5%	8.5%	11.0%	14.0%	16.0%

다. 은행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유도

□ **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**에 대한 **인센티브도 강화**됩니다.

○ **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** 시 **은행권 중금리대출**은 **일부 예외를 검토**하고, 그 실적을 **경영실태평가에 반영**하겠습니다.

○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**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**하여 **공개**하고, **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**할 예정입니다.

2 디지털기술 발전 활용 : 대출금리 인하 유도

가. 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층 대출 공급 활성화

□ 인터넷전문은행이 **법과 도입취지**에 부합하게 중·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**혁신적으로 확대 공급**해 나가도록 **관리감독을 강화**하겠습니다.

○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**중·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**하도록 하고, 이행 현황을 **정기적으로 점검**하며 이행 현황이 **투명하게 공시**되도록 하겠습니다.

※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별도 발표('21.상반기 중)

나.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(CSS) 고도화

□ '**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TF***' 운영을 통해 **중·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·보급**하겠습니다.

* **금융위·금감원, 저축은행중앙회, CB사**, **핀테크기업** 등이 참여

○ 이 과정에서 그간 **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**된 **100만건의 중·저신용층 Big Data**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.

다.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중·저신용층 대출지원 인프라 확대

□ 신용평가에 필요한 **비금융 데이터 활용**, 다양한 **대출상품 비교·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**를 구축·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○ **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정보 제공·접목***을 통해 청년, 주부, 소상공인 등 **Thin Filer의 대출금리 인하**를 유도하겠습니다.

* 플랫폼 사업자 등의 **비금융CB업 진입을 유도**하고 **허가절차도 신속히 진행**

○ 현재 구축 중인 **대환대출 인프라**의 경우 **중·저신용층**에게는 **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**되도록 하고, **중개수수료**도 **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**하겠습니다.

○ 향후 **대환대출 인프라와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연동**을 통해 **금리 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·One-stop으로 진행**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.

3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응 :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

가. 금리산정 합리화 및 중개수수료 인하 유도

□ **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**을 은행권을 참고하여 **합리적으로 개편***함으로써 **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유도**하는 한편,

*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'을 참고하여 '**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**' 개정 추진

○ **대출중개수수료 상한***을 **1%p 인하**하여 **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**를 유도(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방침 旣발표)하고,

* 중개수수료 상한 : (5백만원 이하) 4%, (5백만원 초과) 초과금액 3%+ 20만원

○ **대환대출 인프라** 구축과정에서 **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** 하겠습니다. (참여기관간 자율협약*)

* 수수료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TF에 참여하는 **금융기관과 플랫폼 사업자간 협상**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나,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

나. 은행-제2금융권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

□ **은행**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**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**해 주는 **'연계대출*' 활성화**에 노력하겠습니다.

*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**정보제공**(제3자정보제공, 신용정보조회 등)**에 동의**할 경우 계열 금융회사 **금리·한도를 일괄 조회**한 후 대출이 가능한 회사로 연결

예) ○○○님: A캐피탈 9% 3,000만원, A저축은행 12% 5,000만원 대출 가능

○ **저축은행**과 **인근지역 은행**간의 '**연계대출 협력 MOU**' 체결을 적극 지원*하고,

* 협상력이 부족한 개별 저축은행을 대신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은행(은행연합회)과의 연계대출협력 MOU 체결 확대를 유도

○ 연계대출 과정에서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**'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(Best Practice)**[*]'를 마련·보급하겠습니다.

* 저축은행중앙회와 은행연합회 등이 협력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**연계대출 표준업무 프로세스**를 마련·보급

다.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

□ **제2금융권**에 대한 **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**하여 **저신용 차주 흡수를 지속 유도**하겠습니다.

○ '20.11월부터 시행된 **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**에 대해서도 **영업구역 규제 완화 인센티브**[*]를 부여하는 한편,

*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·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비율(30~50%)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,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130%로 인정

○ **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**(기존 20% 이상 대출)에 적용되던 **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,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**하여 적극적인 **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**하겠습니다.

➡ **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변경**에 따라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**'20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**은 **13.2조 → 30.2조원**으로 변경 집계됩니다.

○ '21년에는 **약 200만명에게 32조원**, '22년에는 **약 220만명**에게 **35조원**의 **중금리대출이 공급**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<**별첨 :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**> 및 <**주요 Q&A**>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「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」 주요 내용 >

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 전면 개편	**1. 사잇돌대출 중·저신용층 공급비중 요건 신설** ▸ 신용점수 하위 30%(기존 5등급 이하) 차주에 70% 이상 공급 **2.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전면 재검토** ▸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요건 중 금리상한*을 하향 조정 * (은행) 10% → 6.5%, (상호금융) 12% → 8.5%, (카드) 14.5% → 11%, (캐피탈) 17.5% → 14%, (저축은행) 19.5% → 16% ▸ 사전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중·저신용층(하위 50%)에 대한 모든 중금리대 대출(금리상한 이하)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 **3. 은행권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** ▸ 중금리대출 실적 증가율 관리 일부예외 검토 및 경영실태평가 반영 ▸ 은행별 중금리대출 자율 공급계획 공개 및 분기별 실적공시
디지털기술 발전을 활용한 금리인하 유도	**1. 인터넷전문은행의 중·저신용층 대출 공급 확대 유도** ▸ 중금리대출 공급계획·실적을 분기별로 점검·개선 **2. 중·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** ▸ 사잇돌대출에 축적된 Big Data 및 비금융정보 활용 확대 **3.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중금리대출 활성화** ▸ 중·저신용층에게는 정책서민대출, 중금리대출 우선 추천 ▸ 중금리대출 중개수수료는 일반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 유도
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한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	**1. 대출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 금리산정 유도** ▸ 저축은행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(모범규준 개정) ▸ 온·오프라인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유도 **2. 은행권-제2금융권 연계대출 활성화** ▸ 저축은행과 인근지역 은행 간 연계대출 협력 MOU 체결 지원 ▸ 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(Best Practice) 마련·보급 **3. 규제개선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** ▸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에 대해 영업구역 규제 완화 ▸ 20%이상 대출에 대한 불이익조치 폐지로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내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< 참고: 중금리대출(사잇돌+민간중금리대출) 제도 개요 >

1. 사잇돌 대출

□ **(개요)**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(마중물 역할)을 위해 **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**하는 **정책 중금리대출 상품**

□ **(보증지원) 서울보증보험의 원금을 전부 보장**(100% 보증)하되, **지급보험금이 보험료의 150%**(저축은행은 130%) **초과시 추가납부**

□ **(대출조건) 대출한도는 1인당 2천만원**(저축은행은 3천만원) **이내,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**

	은행('16.7월~)	**상호금융**('17.6월~)	**저축은행**('16.9월~)
연소득 요건	- (근로) 1,500만원 이상 - (사업·연금) 1,000만원 이상	- (근로) 1,500만원 이상 - (사업·연금) 1,000만원 이상 - (농·축·임·어업 종사자) 1,000만원 이상	- (근로) 1,200만원 이상 - (사업·연금) 600만원 이상
보험료율	1.8%~5.3%		3.6%~8.6%

2. 민간중금리 대출

□ **(개요)** 중·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**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**하고, **인센티브 부여**

□ **(인정요건)** ❶**중금리대출 상품**으로 **사전공시**, ❷**신용등급 4등급 이하** 차주에게 **70% 이상 공급**, ❸업권별 **아래 금리요건**을 충족

<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>

구분	은행	상호금융	카드사	캐피탈	저축은행
가중평균금리	6.5%	8.5%	11.0%	14.0%	16.0%
최고금리	10.0%	12.0%	14.5%	17.5%	19.5%

□ **업권별 인센티브 내용**

업권	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
저축은행	■ **(규제) 영업구역내 개인·중소기업**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**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**(30~50%) 이상으로 유지 ■ **(인센티브)**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**150%로** 인정
여전사	■ **(규제)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**을 **30%이하로 유지** ■ **(인센티브)** 중금리 대출은 **80%로 축소** 반영
신협	■ **(규제)** 조합원에 대한 **신규대출**이 **전체 신규대출의 2/3 이상** ■ **(인센티브)**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**150%**로 확대 인정